

'현우경' 이야기 (44)

팔재계와 두 친구

용이 된 바라문, 왕과 함께 천상에...

오랜 옛날 한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하늘에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절친했던 친구와 함께 부처님을 뵈게 되었다. 부처님의 법문에 감화를 받은 둘은 부처님께 여덟 가지 재계를 받게 되었다. 부처님은 재계를 내리며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일렀다.

바라문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밥을 먹고 권했다. "식사는 안 되요. 부처님께 재계를 받았소. 한낮이 지난 뒤부터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지? 당신은 바라문으로 나름대로 지키는 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교도들의 재계를 받습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이 사실을 다른 바라문들에게 알려 당신을 배척해 몰아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났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할았다. 바라문은 그렇게 부처님과 아내의 만남을 잊고 살다가 죽

음을 맞이했다. 그는 간절히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재계를 어겼기 때문에 용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여덟 가지 재계를 지킨 바라문의 친구는 왕이 되었다. 왕은 어느날 매우 곱고 향기가 좋은 버찌 한 접시를 받게 된다. 버찌를 입에 넣어 보니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달콤한 버찌였다. 씹으면 씹을 수록 머리는 맑아졌고 얼굴은 환해졌다. 왕은 궁녀에게 물었다.

"이 버찌는 어디에서 난 것이냐?"

"문지기가 가져온 것입니다"

왕은 문지기를 불러오게 했다.

"앞으로 이 버찌를 식사 때마다 올리도록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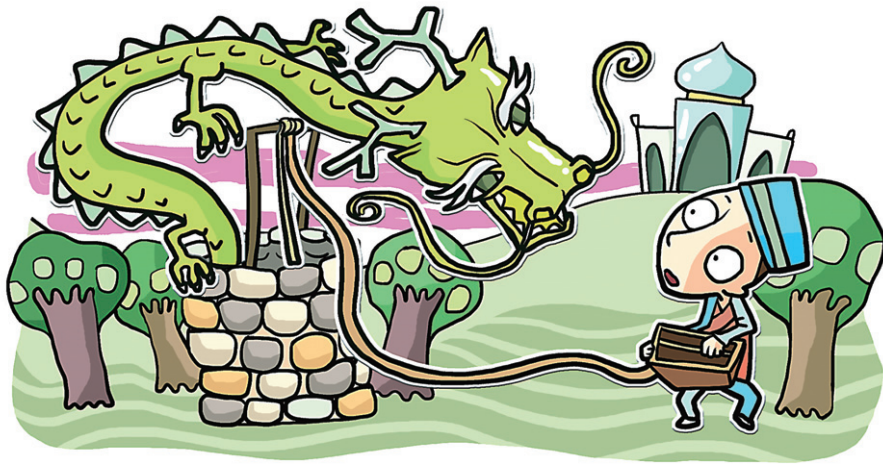
문지기는 몸을 움츠리며 어쩔줄을 몰라 했다.

"왜 대답을 못하는 것이냐?"

"이 버찌는 종자가 없습니다. 우물에서 건졌을 뿐입니다"

"우물에서 버찌를 건져?"

"저도 우연히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다가 너무나 신기해 전하게 올린 것입니다"



삼화·강병호

"그렇다면 다시 구해올 수 있겠느냐?"

"우물에서 건진 것을 어찌 다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네 목을 베리라"

하늘이 무너져내릴 것만 같은 명령이었다. 우물로 가 두레박을 아무리 넣고 건지고 또 건져내도 다시 버찌를 구할 수 없었

다. 문지기는 소리 내어 크게 울었다. 그때 용 한마리가 나타나 문지기에게 말을 건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는가?"

문지기는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자 용은 물로 들어가 나오더니 버찌가 수북이 담긴 금쟁반을 내민다.

"이 버찌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바치고 내 말을 전하라. 나와 왕은 전생에 친한 친

구였다. 옛날 세상에 있을 때 둘 다 바라문으로 여덟 가지 재계법을 배워 지키며 각각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 왕은 계율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되었고, 나는 계율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용으로 태어났다. 나는 지금 재계를 지키고 공부하여 이 몸을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덟 가지 재계책을 찾는다. 그것을 구해내게 보내라. 만일 내 말을 어기면 나는 네 나라를 뒤엎어 큰 바다를 만들 것이다"

이에 문지기는 버찌를 왕에게 올리고 용의 말을 전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하였다. 그때에는 이미 세상에 불법이 없고 또 여덟가지 재계책은 다 없어져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에게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다. 왕은 그에게 말했다.

"용이 내게 여덟 가지 재계책을 요구하니, 그대는 그것을 구해 나에게 주시오."

"지금 세상에 불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나는 그대를 벌할 것이다"

대신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대신의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어두운 낯빛을 보고 묻는다. 대신은 아버지께 자세한 사실을 말씀드렸다.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 마룻바닥 아래에 너희들이 모르는 빛이 비치고 있다. 시험 삼아 쪼개 보아라."

대신은 아버지가 말한대로 마룻바닥을 살펴보니 그 속에서 불경 두 권이 나왔다. 하나는 열두 가지 인연경이요 다른 하나는 여덟 가지 재계책이었다. 대신은 그것을 가져다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뻐 어쩔줄 몰라하며 그 경책을 금쟁반 위에 받쳐 용에게 보냈다. 용은 그 경책을 받고는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보배를 왕에게 보냈다. 그리고 용은 여덟가지 재계를 다시 익혀 부지런히 수행해 목숨을 마친 뒤에는 하늘 궁전에서 태어났다. 또 왕도 다시 여덟 가지 재계법을 공부하고 익혀 수행하다가 목숨이 다했을 때 천상에서 나서 둘은 한곳에 살게 됐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46
- 이름에 얽힌 이야기 -
구성·김흥인

34년 자연산 상황버섯

스님이 직접 해발 500고지 이상의 고원에서
조선뽕나무에 착생시켜 재배한 자연산 상황버섯을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자 합니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 모전리 202번지
(사)부처님 나라
문의 : 041)583-1110